『東西硏究』 제 33 권 1호 (2021) pp. 65-93
http://dx.doi.org/10.29274/ews.2021.33.1.65

COVID-19와 사회적 거리 두기: 국내정치적 요인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유성훈 ▌ 연세대학교**
김이연 ▌ 경기대학교***

〈국문요약〉

2020년 초부터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COVID-19는 2020년 11월 기준 5,000만 명이 넘는 감염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가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최선의 예방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정치적 요인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능력이 높은 국가일수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잘 이행할 것이며,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및 높은 수준의 권위주의 국가 모두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이행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높은 수준의 국가 능력은 효율적인 정책 형성과 신속한 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의 경우 전염병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대중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시도할 것이며, 높은 수준의 권위주의의 경우 강력한 권위로 대중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경험적 분석으로 뒷받침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권위주의는 비효율적이라는 기존 연구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정책 영역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주제어: 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 민주주의, 권위주의, 국가능력

*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세 분의 익명 심사자들께 감사드리며, 본 논문의 모든 오류는 전적으로 저자들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4단계 BK21 사업인 '혁신 과학기술 시대의 정치적 문제 해결 교육연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주저자.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과정 (E-mail: db7070@naver.com)
*** 교신저자. 경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E-mail: dianakimyy@hotmail.com)

Ⅰ. 서 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 Virus Disease 19; COVID-19)는 새로운 유형의 호흡기 감염 질환으로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된 이후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에 침투될 때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진 COVID-19는 기존의 바이러스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전염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바이러스의 특성으로 인하여 COVID-19의 감염자 수는 2020년 11월 13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53,737,059명에 이른다.[1] 이와 같은 규모는 같은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로 분류되는 2003년의 사스와 2015년의 메르스의 감염자 수와 비교 했을 때 규모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Atif & Malik 2020; Al-Taweel et al. 2020). 더 나아가 COVID-19는 흑사병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고 있는 바이러스로 추정되고 있다(Cox 2020). 이러한 전례가 없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 국가들은 커다란 피해를 겪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 위주로 진행되었던 기존 전염병들과 달리 COVID-19는 서구 국가들에서도 막대한 감염자를 발생시키고 있어 병으로 인한 혼란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COVID-19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염병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병의 확산 속도를 늦추는데 탁월한 효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Wang et al. 2020; Yilmazkuday 2020; Stromme & Zhou 2020).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20년 3월 11일 팬데믹(pandemic) 선언을 하면서 #PlayApartTogether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Cucinotta & Vanelli 2020). 또한, 2020년 3월 말부터 개별 국가들도 단체 행사 취소, 재택근무 의무화, 휴교, 이동의 자유 제한 등의 정책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든 국가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데 있어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다른 국가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

1) COVID-19와 관련된 자세한 통계는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 참고. (2020/11/13 검색).

이는 왜 발생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국내정치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하여 어떤 국가에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에 성공적인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중에서 특히 국가의 정치체제(regime type)와 능력(state capacity)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치체제와 국가 능력을 독립변수로 하고 각 국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통계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Ⅱ장에서는 COVID-19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정치체제 및 국가 능력이 전염병 대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국가 능력 및 정치체제에 따라 COVID-19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Ⅳ장에서는 연구 설계 및 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마지막 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서 COVID-19라는 전 세계적 위험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함의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Ⅱ. 선행연구 분석

1. COVID-19와 사회적 거리두기

COVID-19는 10%가 넘는 치사율뿐만 아니라 높은 전염률로 인하여 여러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을 제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COVID-19는 단순한 보건 위기를 넘어서 사회·경제적인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UN 2020). 이에 따라 COVID-19가 야기하는 여러 측면의 문제들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COVID-19가 보건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COVID-19와 같은 팬데믹(pandemic)은 단순히 호흡기 손상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불안, 공포, 스트레스, 외국인 혐오 등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Javed et al. 2020; Samuel et al. 2020). 이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는 높은 전염률을 가진 질병 감염에 대한 두려움 문제 이외에도,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변화한 일상생활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 사재기로 인해 생활필수품 구매가 어려워져질 수도 있다는 불안 및 경제 저성장으로 인한 실업에 대한 불안 등 다양한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다(Abodunrin et al.

2020). 이와 같은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악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 블루(Corona Blue)와 코로나 레드(Corona Red)라고 불리는 새로운 질병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COVID-19로 인하여 취업난이 지속되고 사회 활동이 줄어들게 되자 2030 세대의 우울증 및 자해 비율이 전년도 대비 28% 가까이 증가하였다(이재호 2020).

또한, COVID-19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각 국가의 보건 시스템에 미치는 부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Ma et al. 2020; Correia 2020). COVID-19의 전염력은 상당히 강하여 격리를 필요로 하는 감염자 수를 급격하게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전염병에 대처할 여력이 있는 많은 국가들이 COVID-19 격리 병동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감염자로 인하여 병상 수의 부족을 겪고 있고, 더 나아가 COVID-19에 대다수의 의료진이 투입되어 다른 질병이 있는 환자들의 치료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개도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의료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김계연 2020).

둘째, 많은 학자들이 COVID-19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UN 2020; Evans 2020; Paul 2020; Ayittey et al. 2020). UN의 발표 자료[2]에 의하면 COVID-19는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부터 높은 국가까지 18%에서 24%까지 산업 생산 지수(Index of Industrial Production)를 감소시켰다. 특히, 제조업은 55%(의약품 산업)에서 94%(자동차 산업)까지 생산이 감소하여 직격탄을 맞았다. 무역량의 경우 남아공이나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 및 이탈리아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의 구분 없이 대부분 국가들에서 감소하였다. 산업 기반 시설들이 작동을 멈추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의 수요에 차질이 생겨 각 국가에서는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COVID-19로 인해 4월까지 2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 실업률이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14.7%에 이르렀다(BBC 2020). 조사에 응한 글로벌 기업들의 20%는 1/4이나 그 이상의 인력을 앞으로 감축해야 함을 밝혔다(Rahman 2020). 그러나 COVID-19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 시설들을 재가동 할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한 우려 또한 많다(Samuel et al. 2020).

셋째,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불평등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

2) UN 발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고. https://www.unido.org/stories/coronavirus-economic-impact-10-july-2020. (2020/09/10 검색).

다. UN의 발표에 따르면 COVID-19는 모든 계층의 인구에게 영향을 미쳤으나 특히 빈곤층, 노년층, 토착민, 청년층,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3] 이에 따라 COVID-19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불평등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빈곤층에 대한 지원, 사회보호제도의 재정비, 근로자 보호법의 확충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UN 2020). 이와 더불어 COVID-19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부정정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UN 2020; Wenham et al. 2020). COVID-19가 여성에게 미치는 충격은 제도적 역량이 제한적인 국가 혹은 재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더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UN 2020). 또한, 웬햄(Wenham et al. 2020) 등은 보건정책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으로 인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COVID-19로 인한 위험에 더욱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방역에 투입되는 90% 이상의 인력이 여성이며,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여성들이 훨씬 더 높은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가 유행했을 당시에도 여성을 위한 보건 예산이 비상 보건 예산으로 전환되어 여성 사망률이 증가했듯이 COVID-19의 진행 양상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보건 불평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COVID-19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은 전국민의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이전까지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선의 예방책으로 이행하고 있다(Cucinotta & Vanelli 2020; HEALTH 2020). 사회적 거리두기가 COVID-19와 같은 인플루엔자 전염을 감소시킨 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를 통하여 증명되었다. 인플루엔자 병원균을 통한 전염병의 경우 사람 간에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학교 및 직장 등에서의 밀집된 모임의 횟수를 줄임으로써 바이러스 확산을 줄일 수 있다(Wang et al. 2020; Yilmazkuday 2020; Stromme & Zhou 2020). 또한, 마트레 등(Matrajt et al. 2020)은 COVID-19의 감염자 수나 비율, 회복자 수에 따라 그 영향은 다를 수 있으나, 확산 초기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다가 중단할 경우에는 COVID-19의 확산을 단지 지연시킬 뿐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COVID-19 확산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시행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시행

3) UN 발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고.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spd/everyone-included-covid-19.html. (2020/09/10 검색).

한 국가들은 전염병의 확산이 완화되었음을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염병 확산 저지에 있어 효과적이라는 점과 더불어 어떠한 조건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먼저, 차로웬웡(Charoenwong et al. 2020) 등은 페이스북 연결로 측정한 사회적 연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중국, 이탈리아, 미국 등의 예를 통해 밝혔다. 사회적 연계가 강한 국가는 COVID-19에 심각성에 대한 정보의 공유를 증가시키며 이동을 제한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사회적 연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 수준이 낮거나, 고령화 국가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쟈스팔 등(Jaspal et al. 2020)은 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인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충동적 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임을 설문조사를 통해 밝혔다. 나이가 많을수록 혹은 임금이 적을수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덜 준수했고,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mental health disorder)은 정치적 신뢰가 낮고, COVID-19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며, 결과적으로 충동적인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OVID-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자가격리를 오랜 기간하고 충동적인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COVID-19가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 및 물리적 통증을 유발함에 따라 국가별로 이러한 어려움에 더 취약한 계층이 있다는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분석 수준이 개인 단위에 머물고 있어 국가능력이나 정치체제와 같은 거시적 수준의 요인들이 COVID-19라는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2. 국가 능력 및 정치체제가 위기 대응에 미치는 영향

국가 능력이 위기 대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높은 국가 능력이 자연재해나 전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주장(DSB 2011; Gizelis 2009; Kahn 2005; Persson & Povitkina 2017; Raschky 2008)과 국가 능력이 높을수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저하시킨다는 주장(Cronert 2020; Toshkov et al. 2020)으로 나뉜다.

페르손과 포비츠키나(Persson & Povitkina 2017)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관료제의 발달과 낮은 부패 수준으로 나타나는 국가

능력을 지목하고 있다. 그들은 관료제가 발달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피해 복구를 위한 방안을 정부가 의도한 바대로 실행할 수 없고, 법안을 제대로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관료의 부패가 심한 국가에서는 대피처 설치, 경보 시스템 보완 등 공공재에 투입되어야 할 자원들이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지젤리스(Gizelis 2009)는 국가 능력이 높은 국가는 그렇지 못한 국가보다 공중보건 프로그램을 더 강하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HIV 확산을 더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 크로나찌(Cronert 2020)는 오히려 국가 능력이 전염병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대비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다. 국가 능력이 높은 국가에서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빠르게 한 방안을 선택하여 실행하지 못하고 다양한 방안 중 고민하다가 대응을 위한 타이밍을 놓치게 되어 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체제에 관한 연구들은 민주주의 국가가 권위주의 국가에 비하여 위기 상황에 더 잘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Lake & Baum 2001; Neumayer 2002; 조영남 2020)과 높은 수준의 권위주의 국가도 민주주의 국가와 같이 보건 문제 해결에 효율적이라는 주장으로 나뉜다(Gizelis 2009).

레이크와 바움(Lake & Baum 2001)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인들을 경합 가능 시장(contestable markets)에 존재하는 개인으로 묘사함으로써 민주주의 국가가 권위주의 국가에 비해 공공 서비스를 더 잘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인들은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의하여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다시 선출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인기를 얻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많은 공공재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노이마이어(Neumayer 2002)는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인하여 민주주의 국가는 권위주의 국가에 비하여 대중들에게 더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공공보건 문제에 권위주의에 비하여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둘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로운 정보의 이동을 허용하며, 이는 환경, 보건, 복지 등의 이슈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게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인들은 선거를 통해 당선되기 때문에 권위주의 국가의 정치인에 비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책임(accountability)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 문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진다.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특징들을 가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조영남(2020)이 분석한 중국이 COVID-19 대응에 실패한 원인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중국은 COVID-19 발발 초기에 우한시에 조사팀을 파견하여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관료들의 무사안일주의로 인하여 COVID-19의 존재가 상부에 명확하게 보고되지 못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국에서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부재하고 독립된 시민사회가 발전하지 못하여 정치인들이 전염병 문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도 권력 유지에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나 지젤리스(Gizelis 2009)는 권위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민주주의 국가와 유사하게 독재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오래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문제에 효율적인 대응책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COVID-19라는 상황 속에서 정치체제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크로나찌(Cronert 2020)는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권위주의 국가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며, 정치적 참여 변수보다는 선거가 경쟁적일수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빠르게 시행함을 밝혔다. 반면, 쎄폴로니 등(Cepaluni et al. 2020)은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권위주의 국가보다 COVID-19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밝혀, 민주주의 국가가 전염병 대응에 덜 효율적임을 밝혔다. 국가 능력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미치는 영향 역시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토쉬코프 등(Toshkov et al. 2020)은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국가 능력이 낮을수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빠른 시일 내에 시행했다고 밝힌 반면, 167개국을 분석한 크로나찌 또한 토쉬코프와 유사하게 국가 능력이 낮을수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빠르게 시행함을 밝혔다. 국가 능력이 높은 국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 더 많은 정책적 대안이 있을 수도 있고, 스웨덴과 같이 전문가 집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늦게 시행할 수도 있다(Cronert 2020).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책을 시행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중요 변수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정치적인 특성에 따라 정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어 따라 본 연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초점을 두고, 민주주의와 국가 능력에 관한 분석을 통해 어떤 국내정치적 요인 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 밝혀 보고자 한다.

Ⅲ. 국내정치적 요인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높은 수준의 국가 능력과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체제 및 권위주의 체제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효율적임을 주장한다.

국가 능력이란 단순히 정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방식대로 국민들의 행동을 조절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능력을 말한다(Berwick & Christia 2018). 국가 능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자연재해, 금융위기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 대하여 성공적인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써 국가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Gizelies 2009; Cronert 2020; Persson & Povitkina 2017).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COVID-19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국가 능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시행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가 능력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미치는 인과 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첫째, 국가 능력이 높은 국가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형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과 행정 부처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들은 COVID-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 위하여 단체 행사 취소, 재택근무 의무화, 휴교, 이동 제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속한 정책 집행과 더불어 국가 능력이 높은 국가에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잘 수용할 것이다. 위의 주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1. 국가 능력이 높은 국가일수록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잘 이행될 것이다.

국가 능력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정치체제도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응 및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에 많은 영향을 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인들이 정책 선택에 있어 대중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Boix et al. 2013; Dahl 1971).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인들은 선거를 통해 당선되고, 재당선을 위해서는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정책 반응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Sen

1981; Lake & Baum 2001).

특히, 이와 같은 정책 반응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위기 상황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의 반응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정치인은 야당이나 대중매체로부터 비난을 피하기 위해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비난은 다음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Baekkeskov & Rubin 2014; Besley & Burgess 2002). 둘째,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인들은 재당선을 위해 비상사태를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는 기회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인들은 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하는데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Healy & Malhotra 2009).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COVID-19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강하게 시행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선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정부와 소통하려고 시도한다. 특히, 시민단체와 같은 NGO의 결성을 통해 정책 결정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정부 예산안에 대한 지지 혹은 압력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한다(Murdie & Hicks 2013).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한 요구는 국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더 신속한 위기 대응을 가능하게 만든다(Kahn 2005; Persson & Povitkina 2017). 이러한 점은 COVID-19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게 만들고, 국민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것이라고 믿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에 더욱 잘 순응하게 될 것이다.

한편, 민주주의 수준이 높지 않은 국가들에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은 복잡하게 나타난다. 민주주의 체제가 성숙하지 못한 국가나 다른 세력에 의하여 권위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국가는 위기 상황에 대처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COVID-19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주장은 지젤리스의 보건 문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보충될 수 있다. 그는 정치체제와 HIV 발병률 사이에 역U 곡선(reserved U-curved)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Gizelis 2009). 즉, 민주주의나 권위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HIV 발병률이 낮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COVID-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도 적용될 수 있다.

권위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위기 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권위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은 강력한 권위를 통해 국민들을 억

누를 수단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정책을 강압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중국에서 시행한 도시 봉쇄와 같은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 국가와 같이 정권의 정당성을 지키고자 노력한다. 특히 COVID-19와 같은 국가에 커다란 피해를 준 재난 상황은 권위주의 정권의 지지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대중들이 정당성에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 따라서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Baekkeskov & Rubin 2014). 즉, 높은 수준의 권위주의 국가는 COVID-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2.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잘 이행될 것이다.

가설 3. 권위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잘 이행될 것이다.

Ⅳ. 연구설계 및 분석결과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COVID-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및 국가능력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국가별 사람들의 이동성 변화이며,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수준이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나타나는 이동성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 능력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데이터는 주로 사람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GPS 정보를 바탕으로 측정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COVID-19가 발병한 이후 2020년 2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20년 2

월 15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데이터 접근성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를 본 연구의 분석 기간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GPS 정보가 공개되어 데이터 이용 가능한 74개 국가의 887개 지역이다. 본 연구의 변수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사회적 거리두기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구글(google)이 제공하고 있는 지역사회 이동성에 대한 보고서(community mobility report)[4]를 활용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역별로 지역 내 식료품점이나 공원, 대중교통 정거장, 소매점 및 여가 시설, 주거지, 직장 등과 같은 특정 장소를 방문한 사람의 변화 비율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2020년 1월 3일에서 2월 6일까지 5주 동안의 기간에 해당 요일에 수집된 데이터의 중앙값을 기준값으로 설정하여 이 값을 기준으로 해당 요일에 특정 장소에 방문한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변화하였는지를 통해 계산되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총 74개 국가에서 구글 계정 위치 기록 사용 설정에 동의한 사용자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다.[5]

본 연구에서는 구글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주거지와 직장, 그리고 공원의 방문 비율 변화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사람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집과 일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거지와 직장의 이동성 변화율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데 가장 적합한 변수이다. 또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 중 하나인 공원의 이동성 변화율도 변수로 설정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도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이동성 변화는 수치가 높게 나타날수록 해당 지역에 더욱 오래 머물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거지의 수치가 높게 나타나면 사람들이 집에 더 많이 머물렀다는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시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직장과 공원의 경우 수치가 낮을수록 일터와 공원에 있는 사람들이 감소하였다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모여있지

---

4) 해당 보고서는 https://www.google.com/covid19/mobili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8/24 검색).

5)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는 스마트폰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공급률이 낮은 개발도상국들의 이동성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중국과 이란과 같이 구글이 진출하지 못한 국가들의 데이터들 역시 이용에 제한이 있다.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민주주의와 국가 능력이다. 먼저, 민주주의란 정치적 다원주의, 정치적 참여, 시민의 자유, 그리고 정치 문화 등을 통해 개념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V-dem에서 제공하는 2019년 자유 민주주의 지수(liberal democracy index)를 사용하였다. V-dem의 자유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를 통해 달성된 민주주의의 수준과 함께 헌법으로 보호되는 시민의 자유, 법치주의의 정도, 독립적인 사법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의 수준 등을 통해 계산되었다. 이와 같은 자유 민주주의 지수는 0에서 1사이에 분포하는데 1에 가까울수록 개인의 자유권이 더 확보되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가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시민들의 자유가 침해되며, 행정부가 헌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법부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기능이 낮아 권위주의 국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유 민주주의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0에 가까울수록 높은 수준의 권위주의 국가로 간주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부의 효율성을 지표로 설정하였다. 정부의 효율성이란 공공 서비스의 질, 공무원 조직의 질과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정책 형성과 실행의 질, 그러한 정책을 실행할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에 대한 신뢰 등을 통해 측정된다. 이러한 데이터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제공하는 세계 거버넌스 지표(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18년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는 경험적 연구 모델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9가지의 통제변수를 적용한다.

먼저, COVID-19와 관련된 세 가지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Toshkov et al. 2020). 여기에는 COVID-19 100만 명당 사망자 수, 1,000명당 검사자 수, 검사자 수 대비 양성 감염자 비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

하여 유럽질병관리본부(European Center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ECDC)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였다.[6] 일반적으로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크면 클수록 질병에 대한 각 국가의 대응은 더욱 민감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COVID-19로 인한 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국가일수록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통제변수로는 1인당 GDP를 포함하였다. 이는 World Bank Indicators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1인당 GDP는 다른 변수들의 단위에 비해 수치의 크기와 편차가 큰 관계로 자연로그를 취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바넷트 등의 선행연구(Barnett-Howell et al. 2020)는 저소득 국가들이 선진국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요인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저소득 국가들은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 연령이 젊어 COVID-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적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다고 주장한다. 또한, 저소득 국가들은 선진국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경제 활동의 위축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이루어지고 저소득 국가에서는 그렇지 못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1인당 GDP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다섯 번째 통제변수는 중등학교 입학률(secondary school enrolment)이다. 이는 World Bank Indicators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중등학교 입학률은 각 국가의 교육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써 소득 수준과 함께 국가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은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하여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호응을 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쟈스팔 등(Jaspal et al. 2020)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각 국가의 중등학교 입학률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여섯 번째 통제변수는 인구수이다. 인구수는 각 국가 사이의 편차가 커 자연로그를 취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COVID-19 확산을 잘 저지하였다고 평가받는 국가들은 뉴질랜드, 대만, 싱가포르와 같이 인구수와 영토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들이다(정욱 2020). 이는 인구수가 적은 국가일수록 전염병의 감염 경로

6) 해당 자료는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source-data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20/08/24 검색).

를 확인하고 확산을 통제하기 쉽고, 다른 국가에서 온 사람들과 자국민을 분리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의 인구수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인구수와 더불어 인구밀집도 역시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인구밀집도는 다른 전염병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질병의 확산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Li et al. 2018). 이는 인구밀집도가 높을수록 사람 간의 접촉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높은 인구밀집도는 사람들 사이의 접촉을 감소시키는 데 방해 요인으로 작동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데 방해 요소로 작동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각 나라별 인구 및 인구밀집도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이러한 인구와 인구밀집도 자료는 World Bank Indicators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여덟 번째 통제변수는 각 국가에서 15-64세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다. 이는 World Bank Indicators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젊은 층일수록 COVID-19로 인하여 집에 머무를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입는 타격이 노년층에 비하여 크다(Bloomberg 2020). 이에 따라 15-65세의 사람일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을 요인을 가지고 있다. 또한, COVID-19로 인한 치사율은 노년층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청장년층의 경우 노년층에 비하여 병의 심각성에 대한 불안감이 적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65세 이하의 청·장년층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주지, 직장, 공원의 전날 이동성 변화율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전날 사람들이 얼마나 이동했는지는 그다음 날 사람들의 이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오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어제 사람들이 얼마나 움직였는지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다. 즉, 어제와 오늘의 이동성 변화율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자기상관성(autocorrelation)이라고 하며 시계열 자료에서 자주 발견된다. 따라서 자기상관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전날의 이동성 변화율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위에서 설명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기술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종속변수	거주지 이동성 변화율	12.045	8.959	-16	52
	직장 이동성 변화율	-31.368	20.848	-94	74
	공원 이동성 변화율	2.231	73.58	-100	1029
독립변수	국가능력	0.896	0.704	-0.634	2.04
	민주주의	0.638	0.191	0.091	0.858
	민주주의^2	0.444	0.217	0.008	0.736
통제변수	100만명당 사망자 수	200.005	235.6	0	861.633
	1000명당 검사자 수	46.032	60.024	0.002	641.846
	양성 감염자 비율	0.081	0.123	0	0.651
	1인당 GDP (log)	10.237	0.579	8.524	11.117
	중등학교 입학률	89.025	10.532	37.4	99.81
	인구 수 (log)	17.238	1.329	14.098	19.416
	인구밀집도	151.966	110.585	3.202	508.544
	15-64세 인구 비율	66.309	3.099	59.618	85.676

주1) 표의 모든 숫자는 소수점 4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임.
주2) 거주지 이동성 변화율의 N은 60,386, 직장 이동성 변화율의 N은 91,359, 공원 이동성 변화율의 N은 60,204임.

4) 변수효과 측정법

본 연구는 2020년 2월 15일부터 2020년 8월 21일 기간 사이에 74개의 887개 지역에서 나타난 이동성 변화율을 분석하여 각 국가의 정치체제 및 국가능력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는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을 사용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자유민주주의 지수, 국가능력 등의 독립변수들은 연도별 자료에 기반하고 있지만 종속변수인 이동성 변화율은 일자별로 측정되어 종속변수가 변화함에 따라 독립변수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불변 변수(time-invariant variable)가 존재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횡단면 분석(Time Series Cross Sectional)이 아닌 일반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이분산성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사용하였으며 강건성 확인 및 분석모델 내의 상관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차 종속변수(lagged dependent variable)를 회귀식의 우변에 포함하였다. 킬과 케리(Keele & Kelly 2006)는 종속변수의 오차항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에 있는 경우, 우변에 시차 종속변수를 포함하고 분석을 진행하면 오차항과의 상관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시차 종속변수를 회귀식에 포함하면 독립변수의 자기상관 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모델에서 COVID-19로 인한 사망자 수, 검사자 수, 양성감염자 비율 등과 같은 시차 독립변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앞서 살펴봤듯이 정치체제는 높은 수준의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이루어지지만, 전환기에 있는 국가에서는 거리두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비선형적인 모습을 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체제를 측정하는 민주주의 변수는 제곱항을 이용하여 분석 모델을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델은 아래와 같다.

모델 1.

$$\begin{aligned}\text{주거지 이동 변화율}_{i,t} &= \beta_1\text{국가능력}_i + \beta_2\text{민주주의}_i + \beta_3\text{민주주의}_i^2 \\ &+ \beta_4\text{100만명당사망자수}_{i,t} + \beta_5\text{1000명당검사자수}_{i,t} + \beta_6\text{양성감염자비율}_{i,t} \\ &+ \beta_7\log GDP_i + \beta_8\text{중등학교 입학률}_i + \beta_9\log\text{인구}_i + \beta_{10}\text{인구밀집도}_i \\ &+ \beta_{11}\text{15-64세 인구비율}_i + \beta_{12}\text{주거지 이동변화율}_{i,t-1} + \varepsilon_{i,t}\end{aligned}$$

모델 2.

$$\begin{aligned}\text{직장 이동 변화율}_{i,t} &= \beta_1\text{국가능력}_i + \beta_2\text{민주주의}_i + \beta_3\text{민주주의}_i^2 \\ &+ \beta_4\text{100만명당사망자수}_{i,t} + \beta_5\text{1000명당검사자수}_{i,t} + \beta_6\text{양성감염자비율}_{i,t} \\ &+ \beta_7\log GDP_i + \beta_8\text{중등학교 입학률}_i + \beta_9\log\text{인구}_i + \beta_{10}\text{인구밀집도}_i \\ &+ \beta_{11}\text{15-64세 인구비율}_i + \beta_{12}\text{직장 이동변화율}_{i,t-1} + \varepsilon_{i,t}\end{aligned}$$

모델 3.

$$\begin{aligned}\text{공원 이동 변화율}_{i,t} &= \beta_1\text{국가능력}_i + \beta_2\text{민주주의}_i + \beta_3\text{민주주의}_i^2 \\ &+ \beta_4\text{100만명당사망자수}_{i,t} + \beta_5\text{1000명당검사자수}_{i,t} + \beta_6\text{양성감염자비율}_{i,t} \\ &+ \beta_7\log GDP_i + \beta_8\text{중등학교 입학률}_i + \beta_9\log\text{인구}_i + \beta_{10}\text{인구밀집도}_i \\ &+ \beta_{11}\text{15-64세 인구비율}_i + \beta_{12}\text{공원 이동변화율}_{i,t-1} + \varepsilon_{i,t}\end{aligned}$$

2. 분석결과

〈표 2〉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델 1 주거지	모델 2 직장	모델 3 공원
국가능력	0.567*** (0.0617)	-1.195*** (0.185)	-2.849*** (0.672)
민주주의	-24.05*** (0.970)	57.38*** (2.258)	66.44*** (6.850)
민주주의²	19.07*** (0.819)	-47.48*** (1.996)	-53.41*** (6.132)
100만명당 사망자 수	-0.0003* (0.0001)	-0.003*** (0.0004)	0.012*** (0.001)
1000명당 검사자 수	-0.009*** (0.0004)	0.032*** (0.001)	0.031*** (0.003)
양성 감염자 비율	3.288*** (0.170)	-7.790*** (0.450)	-21.75*** (1.077)
1인당 GDP (log)	-0.315*** (0.083)	1.095*** (0.223)	3.304*** (0.612)
중등학교 입학률	0.068*** (0.004)	-0.259*** (0.01)	-0.169*** (0.027)
인구 (log)	0.273*** (0.0215)	-0.105* (0.0516)	-1.435*** (0.190)
인구밀집도	0.0004 (0.0003)	-0.008*** (0.001)	0.017*** (0.002)
15-64세 인구 비율	-0.0961*** (0.0108)	0.233*** (0.0270)	0.09 (0.070)
거주지 이동성 변화율 (t-1)	0.850*** (0.003)		
직장 이동성 변화율 (t-1)		0.682*** (0.003)	
공원 이동성 변화율 (t-1)			0.847*** (0.006)
상수항	7.097*** (1.031)	-25.44*** (2.272)	-19.56*** (5.569)
관측치	60,386	91,359	60,204
R^2	0.804	0.565	0.790

주1) 표의 숫자는 소수점 4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임.
주2)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뜻함.
주3) *** p<0.001, ** p<0.01, * p<0.05

<표 2>는 국내 정치체제 및 국가능력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델 1, 2, 3은 각각 종속변수를 주거지 이동성 변화율, 직장 이동성 변화율, 그리고 공원 이동성 변화율로 설정한 모델이다. 세 모델에서 나타나는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을 모두 지지하고 있다. 즉, 높은 국가 능력(가설 1)과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및 권위주의 체제(가설 2, 가설 3)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데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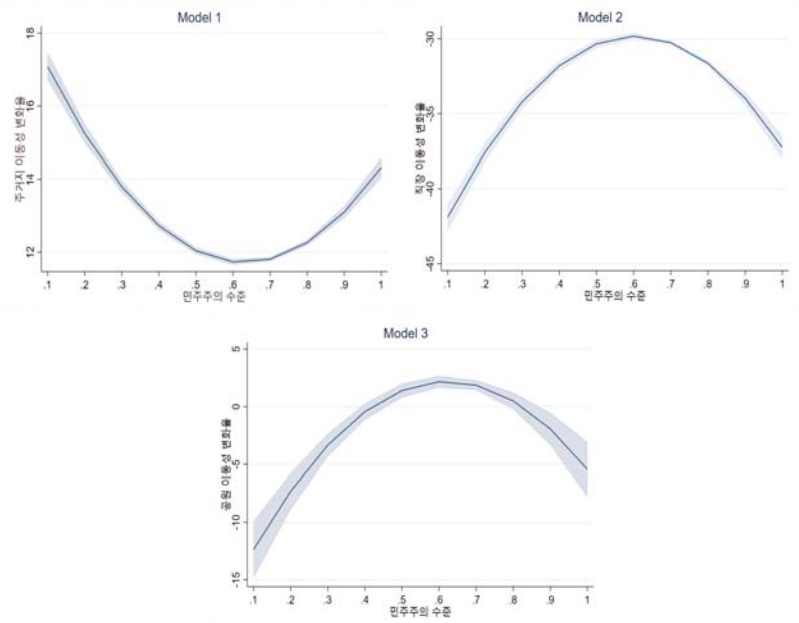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지지하는 국가 능력의 경우 국가 능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거주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직장 및 공원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졌다. 앞서 설명하였듯, 국가 능력이 높은 국가는 단체 행사 취소, 재택근무 의무화, 휴교, 이동 제한 등 국민들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책 수단 및 공무원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수단은 특히 국민들을 주거지에 머물게 하는 것보다 직장과 공원으로의 이동을 막는데 더욱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설 2와 가설 3을 지지하는 민주주의 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사이에서는 곡선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즉, 높은 수준의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정치체제가 전환기에 있거나 낮은 수준의 권위주의 및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거주지 및 직장과 공원의 이동성 변화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델 1에서는 민주주의 변수의 계수는 음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민주주의 제곱항 변수의 계수는 양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 계수는 모두 신뢰수준 9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반면 모델 2와 3에서는 민주주의 변수의 계수가 양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민주주의 제곱항 변수의 계수가 음의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정치체제 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변수 사이의 관계는 모델 1에서 U자형, 모델 2와 3에서 역U자형 모습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는 [그림 1]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설 2와 3의 분석 결과는 여러 국가의 사례들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는 2월 28일 첫 환자 발생 이후 전 국민이 집에 머무르는 국가 봉쇄 및 자가 격리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이행했고 그 결과 유럽 국가들에 비해 COVID-19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WHO 2020).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V-dem 점수 약 0.8의

높은 민주주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뉴질랜드는 주거지 이동성 변화율이 -4에서 46까지 분포했으며 평균 9.17% 증가하였다. 직장으로의 이동성은 평균 13%, 공원의 경우 역시 평균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V-dem 점수 약 0.3으로 높은 수준의 권위주의 국가인 쿠웨이트의 경우 집으로의 이동성 변화율은 -3에서 56으로 분포했으며 평균 20% 증가하였었다. 또한, 직장으로의 이동성은 평균 38%, 공원으로의 이동성은 평균 40% 감소하였다. 쿠웨이트는 2020년 2월 24일 첫 환자가 발생하기 이전 이미 COVID-19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노력을 하였으며,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추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경우 징역 및 벌금 등의 제재가 있으며 필수품 구입을 위한 몇 군데 상점을 제외하고 매장들의 문을 닫게 하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COVID-19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WHO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했다(Ashour 2020).[7]

[그림 1] 정치체제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미치는 영향



7) 두 국가는 -10에서 10으로 민주주의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Polity 데이터에서도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높은 수준의 권위주의 국가임이 나타난다. 뉴질랜드의 경우 10, 쿠웨이트는 -7의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통제변수들은 대다수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일부 변수들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COVID-19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데 신뢰수준 99%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COVID-19의 양성 감염자 수 비율은 집에 머무르는 시간을 증가시키고 직장 및 공원에 머무르는 시간이 감소시켜 사회적 거리두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COVID-19의 검사자 수는 사람들의 이동을 감소시키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검사자 수가 많은 국가일수록 해당 국가의 국민들은 국가가 질병에 대한 대처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인식하여 COVID-19 확산 이전과 같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국가의 사회경제적 수준의 경우, 중등학교 입학률로 측정된 교육수준 변수는 선행연구와 같이 교육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인당 GDP 변수의 경우 저소득 국가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국가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감소하고 직장 및 야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인구수 변수의 경우 인구가 많은 국가일수록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고, 직장 및 공원에 머무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는 인구가 적은 국가일수록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질 것이라는 통념과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COVID-19의 높은 전염률로 인하여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COVID-19의 위험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인구밀집도의 경우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국가일수록 공원으로의 이동성 변화율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인구가 많이 모여 있는 국가일수록 사람들 사이의 접촉을 감소시키는 데 방해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직장으로의 움직임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구밀집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미치는 영향은 신중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15-64세 인구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감소하고 직장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청장년층은 노년층에 비하여 COVID-19로 인한 치사율이 낮고, 경제적 타격을 더욱 크게 받게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Ⅴ. 결론 및 시사점

COVID-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국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전염병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어떠한 국가는 실패하고 있다. 본 논문은 어떤 국내정치적 요인이 이러한 결과를 야기하는지 분석했다. 본 논문은 높은 수준의 국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체제 혹은 권위주의 체제를 갖춘 국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데 효율적임을 주장한다. 국가 능력이 높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국가 정책을 형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국가의 정치인들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각 국가의 국가 능력과 정치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의 통계 분석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및 권위주의 국가 모두가 HIV 감염률 감소에 성공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지젤리스의 연구 결과(Gizelis 2009)와 같은 선상에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권위주의는 비효율적이라는 기존 연구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다. 권위주의 역시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및 권위주의 국가 모두가 잘 이행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논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국내정치적 요인을 밝힘으로써 팬데믹 대응에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잘 다루고 있지 않는 국가 능력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 능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능력이 다른 공공재 제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어떤 조건 하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는지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국가 능력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있어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인권 침해 관련된 부분이 가장 대표적이다. COVID-19 대응에 있어 정부는 시민들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위치 추적을 하고, 동선을 공개하는 등 여러 영역에서 개인의 사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사회정책 혹은 보건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의 국가 능력이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

적인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보다 현실적인 정책 함의를 도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COVID-19 확산이 진행 중인 상황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COVID-19 사태가 종료된 이후 더 장기간의 데이터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각 국가들은 도시 봉쇄를 포함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부터 시민들의 참여와 같은 자발적인 방법까지 수많은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각 국가들이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을 선택하게 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추후에 진행할 연구들에서는 국내정치적 요인과 각 국가의 정책 선택 사이의 인과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에 대하여 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나 권위주의가 아닌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에서 정책 실패가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분석은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전환기 국가에서의 정책 메커니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김계연. 2020. "수도권 병상 76% 가동 …중환자 병상은 23개만 남아(종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31084351004?input=1195m (2020/10/13 검색).

이재호. 2020. "'코로나 블루' 앓는 청년들 … 2030 자해·우울증 확 늘었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1983.html (2020/10/13일 검색).

정 욱. 2020. "신규확진 '0명' 뉴질랜드·싱가포르…방역·백신 모두 잡은 비결은."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12/1311865/ (2021/02/25 검색).

조영남. 2020. "중국은 왜 코로나19의 초기 대응에 실패하였는가?" 『한국과 국제정치』 36(2), 105-135.

영문 자료

Abodunrin, Oyinlola and Bola Adesola, 2020. "Coronavirus pandemic and its implication on global economy." *International Journal of Arts, Languages and Business Studies* 4, 13-23.

Al-Taweel, Dalal, Asmaa Al-Haqan, Dalia Bajis, Jawaher Al-Bader, AbdulRahman M. Al-Taweel, Abrar Al-Awadhi and Fawzeya Al-Awadhi. 2020. "Multidisciplinary academic perspectiv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Planning and Management* 35(6), 1-14.

Amartya, Sen. 1981. *Poverty and Famin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Ashour, Bibi. 2020. "Kuwait During the Pandemic of Covid-19." *Regional Programme Gulf States*, 7.

Atif, Muhammad and Iram Malik. 2020. "Why is Pakistan vulnerable to COVID -19 associated morbidity and mortality? A scoping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Planning and Management* 35(4), 1-14.

Ayittey, Foster, Matthew K. Ayittey, Nyasha B. Chiwero, Japhet S. Kamasah and Christian Dzuvor. 2020. "Economic impacts of Wuhan 2019-nCoV on China and the world." *Journal of Medical Virology* 92(5), 473-475.

Baekkeskov, Erik and Olivier Rubin. 2014. "Why pandemic response is uniq ue: powerful experts and hands-off political leaders." *Disaster Prev M anag* 23(1), 81–93.

Barnett-Howell, Zachary and Ahmed Mushfiq Mobarak. 2020. "The Benefits and Costs of Social Distancing in Rich and Poor Countries." Working Paper, Available at arXiv.org, https://EconPapers.repec.org/RePEc:arx: papers:2004.04867 (2020/09/23 검색).

Berwick, Elissa and Fotini Christia. 2018. "State Capacity Redux: Integrating Classical and Experimental Contributions to an Enduring Debate." *A 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1, 71-91.

Besley, Timothy and Robin Burgess. 2002. "The Political Economy of Govern ment Responsiveness: Theory and Evidence from India." *The Quarterl y Journal of Economics* 117(4), 1415–1451.

Boix, Carles, Michael Miller and Sebastian Rosato. 2013. "A complete data s et of political regimes, 1800–2007."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6(12), 1523–1554.

Cepaluni, Gabriel, Michael Dorsch and Reka Branyiczki. 2020. "Political Regi mes and Deaths in the Early Stages of the COVID-19 Pandemic." *Ca mbridge Open Engage*,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35 86767 (2020/09/23 검색).

Charoenwong, Ben, Alan Kwan and Vesa Pursiainen. 2020. "Social connectio ns with COVID-19-affected areas increase compliance with mobility r estrictions." *Science Advances* 6(47), 1-10.

Coronavirus: Pandemic sends US jobless rate to 14.7%. *BBC*, 8 May 2020, ht tps://www.bbc.com/news/business-52591262 (2020/10/13 검색).

Correia, Tiago. 2020. "SARS-CoV-2 pandemics: the lack of critical reflection addressing short- and long-term challenges." *Int J Health Plann Mana ge* 3(5), 669-672.

Covid-19 Cases Soar in Young Adults Bored of Social Distancing. *Bloomberg*, 27 July 2020, https://www.bloombergquint.com/coronavirus-outbreak /fatigue-with-social-distancing-poses-virus-containment-challenge (2020 /10/13 검색).

Cox, Chelsey. 2020. "Fact check: COVID-19 is deadlier than the 1918 Spanis

h flu and seasonal influenza." *USAtoday,* https://www.usatoday.com/story/news/factcheck/2020/08/20/fact-check-covid-19-deadlier-than-1918-spanish-flu-seasonal-flu/3378208001/ (2020/10/13 검색).

Cronert, Axel. 2020. "Democracy, State Capacity, and COVID-19 Related School Closures." *APSA Preprints,* Available at 10.33774/apsa-2020-jf671-v4.

Cucinotta, Domenico and Maurizio Vanelli. 2020. "WHO Declares COVID-19 a Pandemic. Acta Bio Med." *Acta Bio Medica* 91(1), 157-160.

Dahl, Robert A. 1971.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DSB. 2011. "New Influenza A Virus (H1N1): A Summary of a Study on the National Response in Norway." *Tønsberg: Directorate for Civil Protection and Emergency Planning.*

Engle, Samuel, John Stromme and Anson Zhou. 2020. "Staying at Home: Mobility Effects of COVID-19." Working Paper, Available at SSRN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565703 (2020/09/23 검색).

Evans, Olaniyi. 2020. "Socio-economic impacts of novel coronavirus: The policy solutions." *BizEcons Quarterly, Strides Educational Foundation* 7, 3-12.

Gizelis, Theodora-Ismene. 2009. "Wealth Alone Does Not Buy Health: Political Capacity, Democracy, and the Spread of AIDS." *Political Geography* 28, 121–131.

Healy, Andrew, and Neil Malhorta. 2009. "Myopic Voters and Natural Disaster Poli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3(3), 387-406.

Igwe, Paul Agu. 2020. "Coronavirus with Looming Global Health and Economic Doom." *African Development Institute of Research Methodology* 1(1), 1-6.

Jaspal, Rusi, Barbara Lopes and Pedro Lopes. 2020. "Predicting social distancing and compulsive buying behaviours in response to COVID-19 in a United Kingdom sample." *Cogent Psychology* 7(1), 1-14.

Javed, Bilal, Abdullah Sarwer, Erik Soto and Zia-ur-Rehman Mashwan. 2020. "Is Pakistan's Response to Coronavirus (SARS-CoV-2) Adequate to Prevent an Outbreak?" *Front. Med.* 158(7), 1-4.

Kahn, Matthew E. 2005. "The death toll from natural disasters: the role of i

ncome, geography, and institution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7(2), 271–284.

Keele, L. and Kelly, N. 2006. "Dynamic Models for Dynamic Theories: The I ns and Outs of Lagged Dependent Variables." *Political Analysis* 14(2), 186-205.

Lake, David and Matthew Baum. 2001. "The Invisible Hand of Democracy: Political Control and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Comparative P olitical Studies* 34(6), 587-621.

Li, Ruiqi, Peter Richmond and Bertrand M. Roehner. 2018. "Effect of popula tion density on epidemics." *Physica A: Statistical Mechanics and its Ap plications* 51, 713-724.

Ma, Tara, Anita Heywood, and C.R. MacIntyre. 2020. "Travel health risk per ceptions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Australia – Implications for COVID-19." *Infection, Disease & Health* 25(3), 197-204.

Matrajt, Laura and Tiffany Leung. 2020.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Soc ial Distancing Interventions to Delay or Flatten the Epidemic Curve of Coronavirus Disease." *Emerg Infect Dis* 26(8), 1740–1748.

Murdie, Amanda and Alexander Hicks. 2013. "Can International Nongovern mental Organizations Boost Government Services? The Case of Healt h." *International Organization* 67(3), 541-573.

Neumayer, Eric. 2002. "Do Democracies Exhibit Stronger International Enviro nmental Commitment? A Cross-Country Analysis." *Journal of Peace Re search* 39(2), 139-164.

Persson, Tove Ahlbom and Marina Povitkina. 2017. "Gimme shelter: The rol e of democracy and institutional quality in disaster preparedness." *P olitical Research Quarterly* 70(4), 833–847.

"Pressure on Healthcare Systems: Coping with Demand for ICU and Hospit al Beds." *European Data Portal*, 30 June 2020, https://www.europeand ataportal.eu/en/impact-studies/covid-19/pressure-healthcare-systems-c oping-demand-icu-and-hospital-beds (2020/10/13 검색).

Rahman, Mokhlesur, Jean-Claude Thill, and Kamal Chandra Paul. 2020. "CO VID-19 Pandemic Severity, Lockdown Regimes, and People's Mobilit y: Early Evidence from 88 Countries." *Sustainability* 12(21), 9101.

Raschky, Paul A. 2008. “Institutions and the losses from natural disasters.” *Natural hazards and earth system sciences* 8(4), 627–634.

Samuel, Jim, G. Md. Nawaz Ali, Mokhlesur Rahman and Ek Esawi. 2020. “COVID-19 Public Sentiment Insights and Machine Learning for Twe ets Classification. Information.” *Information* 11(6), 314.

Toshkov, Dimiter, Kutsal Yesilkagit and Brendan Carroll. 2020. “Government Capacity, Societal Trust or Party Preferences? What Accounts for the Variety of National Policy 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 in Europe?” *OSF Preprints*. Available at https://doi.org/10.31219/osf.io/7chpu. This content is a preprint and has not been peer-reviewed (2020/09/23 검색).

UN. 2020.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spd/2020/04/social-impact-of-covid-19/ (2020/09/27 검색).

Wang, Jingyuan, Ke Tang, Kai Feng and Weifeng Lv. 2020. “When is the COVID-19 Pandemic Over? Evidence from the Stay-at-home Policy Execution in 106 Chinese Cities.” Working Paper, Available at SSRN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561491 (2020/09/23 검색).

Wenham, Clare, Julia Smith and Rosemary Morgan. 2020. “COVID-19: the gendered impacts of the outbreak.” *The Lancet* 395(10227), 846-848.

WHO. 2020. https://www.who.int/westernpacific/news/feature-stories/detail/new-zealand-takes-early-and-hard-action-to-tackle-covid-19 (2020/09/27 검색).

“Why You Should Continue Wearing A Mask and Social Distancing After Getting The COVID-19 Vaccine.” *HEALTH,* 22 January 2021, https://www.mhealth.org/blog/2021/jan-2021/mask-and-social-distance-even-after-covid-19-vaccine (2021/02/25 검색).

Yilmazkuday, Hakan. 2020. “Stay-at-Home Works to Fight Against COVID-19: International Evidence from Google Mobility Data.” Working Paper, Available at SSRN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571708 (2020/09/23 검색).

Abstract

COVID-19 and Social Distancing: the Effect of Domestic Politics on Social Distancing

Seong Hun Yoo ▌ Yonsei University
Yiyeon Kim ▌ Kyonggi University

Due to its rapid spread and the large number of people it has infected, COVID-19 has threatened the whole world since early 2020. In the absence, thus far, of an effective vaccine, social distancing has been the most effective way to avoid spreading it. This study examines domestic political effects regarding social distancing. We argue that as a country has a higher state capacity, it is more likely to implement a higher level of social distancing. In addition, a strong democracy is likely to implement a high level of social distancing because governments seek to be re-elected, while strong autocracy is also likely to implement a high level of social distancing controlling the behavior of the public. Through empirical tests, this study finds supporting evidence for our arguments.

Key Words: COVID-19, Social Distancing, Democracy, Autocracy, State Capacity

❑ 논문접수일: 2021년 1월 19일, 심사완료일: 2021년 2월 19일, 게재확정일: 2021년 3월 3일